



## 정겨움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연길

글 | 최용운(결핵연구원 세균과장)

태풍과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럴 때 우리만 해외 출장을 떠나도 되나 하는 마음 한구석 미안함을 안고 우리 일행 4명은(강원지부 김숙희 계장, 전북지부 송희숙 선생, 대구·경북지부 이재후 선생 그리고 필자) 길림성 연변자치주 결핵방치소 방문을 위해 연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내에서 운 좋게도 한국분과 결혼하여 3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신다는 연길 아주머니와 자리를 함께하는 바람에 연길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었다. 약 2시간 10여 분의 비행 속에 드디어 창 밖으로 우리나라의 산하와 너무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연길의 산과 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지어진 붉은 황토벽돌 집들을 보면서 연길 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사를 건네 받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제 할 일만 하고 있는 연길공항의 출입국 직원들을 뒤로 하고 공항을 빠져 나오니 연변결핵방치소의 윤옥자 선생님이 함박웃음으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셨다.

속소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본 연길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이 흡사 우리나라의 1980년대, 한창 도시 개발붐이 일어나던 그 때의 모습이었다. 시내에 들어오면서 무척 의아했던 모습 중 하나는 시내 교통질서가 너무 엉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도 무단횡단을 하고 차도 아무 곳에서나 방향 지시등을 켜고 회전을 하고 심지어는 중앙 차선을 넘는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교통상태가 이리하니 계속해서 차량 경적을 울리는 소리로 시내는 무척이나 소란스럽다. 또 하나는 시내 모든 상가의 간판이나 안내문이 반드시 한글과 한자로 병행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변자치주에서는 모든 간판과 안내문 등에 반드시 한글로 먼저 표기하고 한자를 표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민족의 얼과 긍지를 지키고자 하는 이곳 연변자치주 조선족 사람들의 모국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우리 일행은 숙소에서 승용차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연변결핵병방치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날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연변결핵병방치소는 연회색 4층 건물로 아담하고 깔끔하였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김덕복 소장님으로부터 연변자치주의 현황과 연변결핵병방치소의 현황, 환자치료 및 관리,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등 결핵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핵관리와 비슷했지만 도말양성 환자들에게 DOTS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모든 결핵환자는 오직 결핵병방치소에서만 치료와 관리를 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조금 달랐다. 연변결핵병방치소의 방문을 끝내고 너무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숙소로 돌아와 연길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둘째 날 우리 일행은 아직 피곤함이 묻어있는 눈을 비비고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백두산과 장백폭포를 보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백두산으로 가는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출발 당시에는 비가 오고 매우 흐려 혹시나 천지를 못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우리의 마음을 잃기라도 한 듯이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기 시작하였다. 백두산까지 가는 중간에 펼쳐진 풍경은 우리의 시골 풍경과 너무나도 흡사해 마치 국내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약 5시간을 달려 백두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장백산 산문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먼저 장백폭포를 구경하고 천지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장백폭포에 오르는 길 주변에 가득 피어난 노란 야생화와 커다란 곰치 나무가 정겹게 느껴졌다. 장백폭포에 오르는 중간에 땅 속에서 약 83℃의 뜨거운 유황물이 흐르는 노천 유황온천 물에 계란과 소지시 그리고 옥수수를 삶아 파는 소박한 상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본 장백폭포는 웅장함과 함께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량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일행도 장백폭포의 신선함을 직접 느껴보고자 흐르는 물에 얼굴과 손을 담가 보았다.

백두산의 천지를 보기 위해 정상부근까지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길을 따라 지프차로 이동하였다. 편리한 것도 좋지만 자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길을 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모래와 같은 흙을 밟으며 30여 미터를 올라가니 눈앞에 믿기지 않는 경관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면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던 천지의 모습이 드러나자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고 그저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아무에게나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천지의 신비가 내 눈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도 천지의 신비를 보고 싶어 사흘이나 백두산에 머물렀지만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데, 그 천지의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을 떠나 연길로 돌아오는 길에 안도현결핵병방치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둘째 날 일정을 마쳤다.

셋째 날은 우리의 가곡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일송정과 해란강이 있는 도시 룡정시결핵병방치

소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에 앞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몸 바쳤던 일송정과 해란강을 둘러보았다. 지금은 사라지고 그 푸른 솔의 향기만이 아스라이 남아 있는 일송정 정자에 올라 저 멀리 고요하게 흐르는 해란강을 바라보니 이 드넓은 황무지에서 우리 선조들의 고난과 역경의 삶이 어떠했을지 어렵듯이 짐작되었다. 그곳에선 중학생과 초등학교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이며 음료, 기념품 등을 팔고 있었는데 두 여학생의 동생으로 생각되는 6살짜리 꼬마가 우리를 보더니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우리도 “대~~한민국” 구호와 함께 박수로 화답해 주었다.

룡정시결핵병방치소는 작년에 신축을 해서 그런지 깔끔하고 아담한 연분홍색 2층 건물이다. 방치소 내부는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었고 무척이나 깨끗해 보였다. 검사실 시설 및 장비는 아직 우리 협회 지부와 비교하여 다소 뒤떨어진 면이 있지만 역시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룡정시결핵병방치소를 떠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연길에서 제일 넓은 휴식공간이라는 진달래광장을 잠시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산책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 것이 우리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노천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자기의 노래 솜씨를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연변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은 숙소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새벽시장을 둘러보며 아침을 맞이하였다. 연변의 새벽시장은 마치 우리나라의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새벽시장 구경을 마친 후 우리는 마지막 방문지인 도문결핵병방치소를 방문하기 위해 도문시로 출발하였다. 도문결핵병방치소 방문에 앞서 우리의 반쪽 북녘땅을 볼 수 있다는 도문다리를 둘러보았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다리 중간에 그어져 있다는 도문다리에서 바라본 두만강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협소했다. 도문다리의 국경선에서 바라본 북녘땅... 우리 땅 우리 동포가 살고 있건만 마음 놓고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는 곳... 이곳을 보기 위해 중국 대륙을 거쳐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이 아픔으로 다가왔다. 도문다리 입구에서 도문시결핵병방치소 안영일 소장님과 반가운 해후를 하였다. 그러나 도문결핵병방치소는 지금 신청사로 옮기기 위해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방문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귀국을 위해 연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3박 4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이번 연변 방문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겨움과 따스함을 가슴 한가득 느끼게 해준 여정이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협회 회장님, 총장님 그리고 연구원장님과 협회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연길에 머무는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해주신 연변결핵병방치소 김덕복 소장님 이하 방치소 선생님들과 우리가 방문했던 안도현, 룡정시, 도문시결핵병방치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깊이 감사드린다. 卄